

## 파월 의장 앞 美 법무부 소환장 발부에 대한 시장참가자 평가

## 1. 美 법무부 소환장 발부\*에 대한 파월 의장의 성명 주요 내용

\* 파월 의장은 1.11일(일) 뉴욕시간 19시경,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1.9일, 금)한 것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영상 자료와 함께 배포(홈페이지에 게시)

# 연준 본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청문회(25.6월)에서 파월 의장의 위증 의혹(연준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이 계획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것과 관련하여 파월은 고급 인테리어와 무관하다고 증언)

□ (소환장 발부 배경에 대한 반박) 파월 의장은 금번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는 연준 건축물 리모델링과는 관계없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으로 해석

○ 이는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기반하여 금리를 결정한 데 대해 기소로 위협하는 것임

\* 정쟁에 관계없이 4번의 행정부에서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파적 태도 없이 오직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책무에 집중하여 연준 이사회 업무를 수행해 왔음

— 문제의 핵심은 향후 연준이 경제 여건에 근거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 것인지에 있음

□ (연준 독립성 수호\*) 공적 업무는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며, 본인은 상원의 인준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미국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

\* 前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린을 비롯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전직 관리들은 파월 의장과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옹호하며, 이번 기소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난

## 2. 시장 반응 및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동 조치는 現 정부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나, 오히려 파월 의장의 이사 잔류 가능성을 높이며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장기금리 및 모기지금리 하락 유도, Fannie Mae, Freddie Mac을 통한 MBS 대량 매입 지시,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single-family homes) 매입 금지 검토, 신용카드 금리 상한 발언 등 중산층 이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Citi)

작성자: 전재환 차장(워싱턴), 김대석 과장(뉴욕)

-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압력 행사가 공식화\*됨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 수호 차원에서 **파월이 의장 임기 이후(26.5월)에도 연준에 남을 수 있는(이사 임기: 28.1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

\* 파월 의장의 성명은 행정부의 정치적 압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것(BNP Paribas)

- 또한 공화당 내 이견을 불러와 향후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연준 외부인사 선임시\*\* 연준 내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

\*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Thom Tillis 의원은 금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연준 위원 지명자도 반대하겠다고 즉각 선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인 상황(공화당 13 : 민주당 11)에서 일부 공화당 위원이 반대\*할 경우 차기 연준의장을 포함한 향후 연준 인사 승인절차가 어려울 수 있음 시사(Nomura)

#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Kevin Kramer 위원 또한 파월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수사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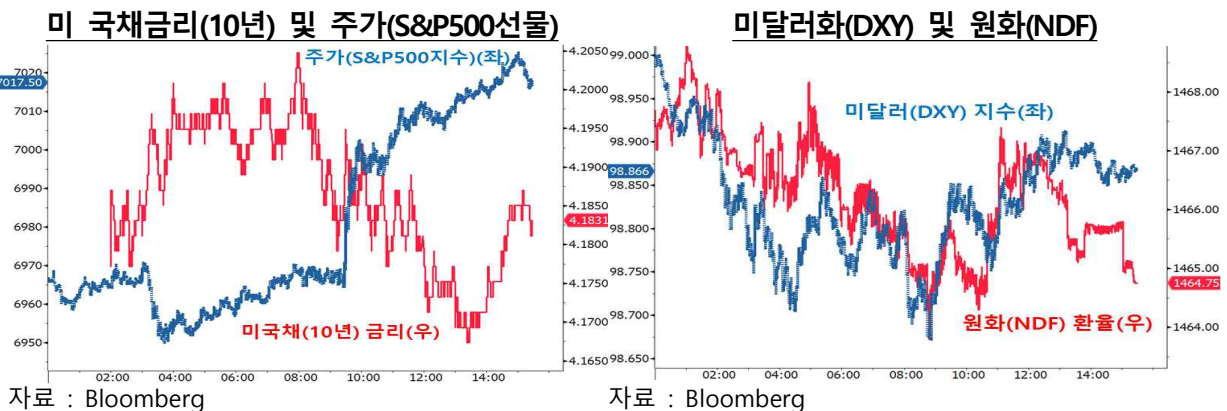
\*\* 온라인 베팅업체인 Polymarket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1위 케빈 하셋 42%, 2위 케빈 워시 40%), 하셋은 대표적인 親트럼프 인사로 꼽힘

- 한편 동 조치로 작년 4월 상호관세 부과시와 같이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경우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

\* 트럼프 정부는 금리 급등, 주가 및 미달러화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때마다 보다 유화적인 조치를 취함(TAC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연준 조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현재 대배심 소환 단계로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가 될지는 불투명(Bank of America)

- Powell 연준 의장의 성명 공개 이후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되며 장초반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미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나, 금리는 미국채 입찰(3년물, 10년물) 호조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였으며 주가는 소매업·기술주 강세\* 등으로 반등**

\* 월마트(+3.0%)는 나스닥 100지수 편입 예정(1.20일)임에 따라 주가가 상승. 구글(+1.1%)은 AI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장중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돌파



### <주요 투자은행 등 코멘트>

- **(Bank of America)** 동 조치는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의장 임기 종료(26.5월) 후에 이사(이사 임기: 28.1월)로 남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음. 다만 트럼프 측의 이번 압박은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 수호 차원에서 **파월이 연준에 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줌**. 상호관세 부과 당시에서 관찰했듯이 트럼프 측은 미국채 금리 급등, 미 주가·미달러화 급락(Sell America) 등 금융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크다면 정치적 공격 또한 수그러들 것
- **(Nomura)** 그간 정치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 왔던 파월 의장이 명시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라고 비판**함에 따라 백악관과 연준간 정면 충돌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risk-off 유발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Thom Tillis 위원의 공개 비판은 동 위원회에서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인 상황(공화당 13 : 민주당 11)에서 **향후 연준 인사 승인절차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한편 동 조치는 연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압박의 일환으로 지난주 Fannie Mae, Freddie Mac을 통한 MBS(주택저당증권) 총 2천억달러 매입 지시, 신용카드 금리 상한 10% 상한 발언 등과 함께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이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포석일 수 있음
- **(Citi)** 동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둔 생활비 완화(affordability) 정치 전략의 연장선**임. GSE(정부후원기관)을 통한 MBS 대량 매입 지시,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single-family homes) 매입 금지 검토, 신용카드 금리 상한 발언 등 현재 백악관의 정책 행보는 명확함
- **(Deutsche Bank)** 동 조치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재점화하며 ① 연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한 파월 의장의 연준 이사직 잔류 가능성 확대, ② 차기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추진 난이도 상승 등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바에 반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
- **(BNP Paribas)** 파월 의장의 성명은 행정부의 정치적 압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것이며, **그로 인해 향후 정치적 개입의 비용이 커진 상황**.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하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은 여전히 위원회 중심으로 유지될 것이며 즉각적인 방향 전환 가능성은 낮음
- **(WSJ)** 동 조치는 차기 연준의장에 보내는 경고. 현재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막바지 절차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면 같은 방식의 압박이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백악관 연회장 건설 비용이 당초 2억달러에서 최대 4억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물론 동 비용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 예정)한 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당초 80억~120억달러 계획에서 600억달러로 확대된 점을 볼 때 이번 소환장 발부의 표면적인 명분인 연준 리모델링 비용 증가가 파월 의장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구실(pretext)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움**
- **(CNBC/Bloomberg)** 톰 킬리스 상원 의원(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대통령이 추천하는 연준 의장 및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본인의 뜻대로 운영하려는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상원 은행위원회 구성(공화당 13 : 민주당 11)상 킬리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번 법무부 조치로 인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임기(26.5월)가 종료된 후에도 이사 직위(28.1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